

부활절 일곱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THE 7TH SUNDAY OF EASTER

주후 2023년 5월 2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54 장 “주와 같이 되기를” (통일 50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95 번 가정주일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골로새서 (Colosians) 3:18-25	한경준 집사
찬 양 Anthem		찬양대
설 교 Sermon	“주께 하듯 하라” (Work for the Lord)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집례: 김일선 목사)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449 장 “예수 따라가며” (통일 37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불꽃같은 눈동자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시기와 분냄과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세상에 속한 죄와 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반복되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139:2-3, 고후12:2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개역개정 골3:23)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s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men.”

(NIV Colosians 3:2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21 (주일)	5/22 (월)	5/23 (화)	5/24 (수)	5/25 (목)	5/26 (금)	5/27 (토)
	민30	민31	민32	민33	민34	민35	민36
본문	시74	시75,76	시77	시78:1-37	시78:38-72	시79	시80
	사22	사23	사24	사25	사26	사27	사28
	벧후3	요일1	요일2	요일3	요일4	요일5	요일1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5/24수 오후7:30)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42:1-5) - 김재우 장로
토요 새벽기도회 (5/27토 오전6:30)	"새벽을 깨우시는 예수님" (막1:35) - 김강석 장로

지난 주일(5/14) 말씀 - 하나님의 가정(2)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21-33)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며, 신앙 생활을 지속해 오신 분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 (엡5:21-33)이 그리 생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굳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1)먼저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엡5:21), 2)그 다음으로 사랑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이며(엡5:25-27), 3)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놀라운 비밀(Mystery, 헬라어, Musteion)이라는 사실입니다(엡3:31-32). 즉,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미리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자꾸만 지적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있지만, (만약)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는 대신에,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갈6:2). 그러므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의 짐을 짚어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